■ 광주 동구

정치 1번지 … 선거구 획정 결과가 변수

광주의 '정치 1번지'라고 불렸던 동구가 인구하한선 기준에 걸려 인근 남구 또는 북구 선거구와 합쳐질 위기에 놓였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입지자들은 단 한명도 없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결과에 따라 가장 변수가 많은 지역이다.

신당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통합신당' 박주선(66) 의원의 4선 도전이 점쳐지고 있고, 박 의원의 신당 바람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느정도 불지 관심사다.

이에 맞서는 후보군으로는 이병훈(58)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전 이사장과 정영재(54) 광주인권평화재단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박주선 의원에 패했지만, '와신상담'하며 바닥 민심을 훑어왔다.

박주선 국회의원

강용주 센터장

이병훈 이사장

정영재 인권재단대표

아직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전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복당 또는 신당행을 택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북한 전문가이기도 한 정 대표도 총선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안철수 신당 및 천정배 신당 후보군은 눈에 띄지 않고 있지만, 강용주(53)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신당측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구청장 재선거로 인해 '국회의원-청장'후보간 러닝메이트 조합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 서구 갑

재선 도전 박혜자 탈당 등 거취에 촉각

더불어민주당 박혜자(59) 의원의 재선에 맞서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송갑석(49)(사)광주학교 교장의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하지만, 박 의원이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박 의원의 거취 문제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을 '뚝심'있게 밀어 붙이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선임에도 당 최고위원과 시당위원장 등의 주요 직책도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박혜자 국회의원

심판구 시당위원장

김종배 전 국회의원

송갑석 광주학교장

송선태 상임이사

정용화 이사장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송 교장은 (사)광주학교를 운영하면서 '무등산 역사길'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소외계층 후원 및 지역아동지원센터 등의 시설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패배의 아픔을 맛본 정용화(52) 호남미래연대 이사장도 고려인돕기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등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이밖에 송선태(60)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종배(61) 전 의원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에선 심판구(75) 광주시당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 광주 서구 을

천정배-더불어민주당 자존심 대결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당선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뼈아픈 패배를 안긴 선거구다.

최근 신당인 '국민회의'창당을 준비중인 천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구을 수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설욕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또 한번의 '혈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김하중(56) 전남대 로스쿨 교수, 김정현(56) 중앙당 수석부대변인이 설욕을 준비중이다.

천정배 국회의원

정승 전 식약처장

김하중 전남대 교수

김정현 수석부대변인

조용진 전 기조실장

강은미 전 시의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천 의원에게 패한 조영택(64) 전 의원도 아직 출마를 고민중이지만, 지역을 돌며 바닥민심은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선거 패배의 설욕을 위해 새로운 인물을 전략공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지역정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조용진(62) 광산업진흥회 상임부회장도 출마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선 4·29 재보선에 출마해 11%의 지지율을 기록, 선전을 펼쳤던 정승(57)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 정 전 처장은 재보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 12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정의당에선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낸 강은미(45) 전 시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광주 남구

선거구 획정 따라 선거 구도 달라질 듯

남구도 선거구 획정이 변수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남구 일부(양림·방림동)가 동구와 합쳐질 경우 지지기반에 따라 후보들의 이동도 가능해 선거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병완 국회의원

한경노 당협위원장

김명진 전 비서실장

서정성 전 시의원

정진욱 정책자문관

강운태 전 광주시장

강도석 전 시의원

3선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장병완(63) 의원의 탈당 가능성 등 거취 문제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명진(52) 전 박지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안철수 의원 보좌관을 지내는 등 안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의사 출신 서정성(44) 전 광주시의원도 '안철수 신당' 후보로 출마채비를 하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정진욱(51) 광주시혁신도시정책자문관도 본격적인 채비를 하고 있다. 정 자문관은 '안철수와 함께하는 광주시민정책포럼 대변인'을 지냈다.

남구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운태(67) 전 광주시장도 기존 조직력을 중심으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일찌감치 총선을 준비중이다.'국민회의' 광주시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김영집(52) (사)지역미래연구원 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도석(61) 무소속 후보도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새누리당에선 한경노(58)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중이다.

■ 광주 북구 갑

강기정-김경진 리턴매치 … 김유정 도전장

북구갑과 을 선거구 가운데 을 지역 인구가 29만4355명으로, 인구상한선 기준을 초과해 분구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북구 전체 인구가 44만8779명이어서 경계조정으로 현재 선거구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선거구 경계 조정이 변수다.

북구갑 선거구에선 지역구 4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51) 의원과 김경진(50) 변호사의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 출신이며, 당내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김유정(46) 전 국회의원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범친노계'인 강 의원과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진선기(51) 전 광주시의원과 박대우(48) 지역발전정책연구원장이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해 바닥민심을 다지고 있다. 이들은 신당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국회의원

김경진 변호사

김유정 전 국회의원

진선기 전 시의원

박대우 연구원장

강 의원은 3선으로 다진 탄탄한 조직이 강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변호사는 종합편성채널에 얼굴을 알리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진 전 시의원도 재선 시의원을 통해 다져온 탄탄한 조직을 통해 내년 총선에 첫 도전을 준비중이다.

그동안 광주에서 4선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기정 의원의 4선 성공 여부가 주목되는 선거구다.

■ 광주 북구 을

임내현 탈당에 경선·본선 치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 합류가 점쳐지는 임내현(63) 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형석(53)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이남재(48) 전남도 정무특보, 최경환(56)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내현 국회의원

김윤세 당협위원장

노남수 시민감사관

이남재 전 정무특보

이형석 전 광주부시장

최경환 공보실장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분열로 인한 '신당'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들이 당내 경선이 아닌 탈당과 함께 신당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형석 전 부시장은 이해찬 전 총리와 막역한 사이로 '친노(친노무현)계'여서 탈당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최경환 공보실장은 '동교동계', 이남재 정무특보는 '손학규 전 대표계'로 분류되고 있어 계파 상황에 따라 탈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노남수(46) 광주시 시민감사관도 신당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성환(55) 국무총리실 관리관 출신은 천정배 신당인 '국민회의' 후보로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구을 선거구는 신당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간 본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윤민호(45)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 광주 광산구 갑

탈당 김동철에 강위원·송병태·장원섭 도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 김동철(60) 의원의 4선 도전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한필(44) 광산문화경제연구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여기에 송병태(75) 전 광산구청장과 장원섭(49)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등의 출마 여부가 관심이다.

특히 김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선 인재영입을 통해 정치 신인인 후보를 내세운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 한총련(한국총학생회연합) 의장인 강위원(45)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장이 새로운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대신당 후보들 간 본선 경쟁이 어느 지역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국회의원

임한필 연구소장

송병태 전 구청장

장원섭 전 사무총장

강위원 복지관장

하지만, 김 의원의 탈당에 따라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대거 탈당할 것으로 보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역위원회부터 다시 꾸려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특히 광산 갑 선거구는 광주지역 다른 선거구와 달리 도농(都農) 복합 선거구라는 점에서 3선인 김 의원의 탄탄한 조직력이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에선 김용채(68) 광산갑 당협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 광주 광산구 을

권은희 – 이용섭 전·현의원 맞대결 예상

2014년 7월 재보선에서 당선한 권은희(41)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으로 선거판도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도전하는 권 의원과 이용섭 전 국회의원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전·현직 의원 간 대결이 관심사로 보이기는 하지만, 권 의원이 아직 확실하게 안철수-천정배 신당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점이 향후 변수로 꼽힌다.

이용섭 전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복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어찌됐든 전·현직 국회의원 간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신당 세력 간 연대 여부에 따라 후보군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권은희 국회의원

송환기 당협위원장

김중구 공인중개사

송경종 전 시의원

문정은 위원장

이용섭 전 국회의원

현재로서는 송경종(45)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새누리당 송환기(63) 당협위원장 등도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중구(48)씨와 문정은(29) 정의당 광산구위원회 위원장까지 최대 6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젊은층의 유권자가 많아 신당 바람이 불거나 참신한 인물이 바람을 탈 경우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목포

박지원 아성 … 무안·신안과 합구될지 관심

목포는 선거구 조정이 최대 변수다.

목포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73) 의원이 출마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 박석만(50)·한영배(57), 더불어민주당 조상기(66), 무소속 배종호(54)·유선호(62)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 정의당 서기호(46) 의원도 출마를 전제로 바닥을 다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 정치권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박 의원은 최근 당내 갈등 국면에서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통한 야권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1월 중에 탈당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의 탈당 및 신당 참여, 무소속 출마 여부는 목포와 전남을 넘어 전체 총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국회의원

박석만 전 국정원직원

한영배 법무사

조상기 전KBS이사

배종호 세한대교수

유선호 전 국회의원

3선 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전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석만 후보와 목포시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인 한영배 후보, 전 KBS 뉴욕 특파원인 배종호 후보는 조직을 재정비한 뒤 지역 표밭을 다지고 있다. 정의당 서기호 후보도 참신성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후보군 순서는 현역 의원·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순

■ 광주지역 선거구

■ 전남지역 선거구